

# SAFETY NEWS LETTER



| 발행처 |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 | 연락처 | 이소연 주무관  
(☎ 053-668-0224)

## 2023년 항공교통본부 안전성과지표

<p><b>분리최저치 미확보</b> 항공교통업무 요인으로 인한 분리최저치 미확보</p>	<p><b>비관제 항공기 항공로 근접비행</b> 사전 협조 없이 항공로 진입·통과 또는 협조된 내용과 다르게 비행</p>	<p><b>무선통신 두절</b> 조종요인, 장비요인 등으로 인한 발생 건수</p>
<p><b>관제협조 미흡</b> 항공교통관제업무 요인 협조사항 미준수</p>	<p><b>비행경로 이탈</b> 관제기관의 사전 허가 없이 제출된 비행계획서 항공로 및 관제지시된 항공로 이탈</p>	<p><b>내부자율보고 건수</b> 잠재된 위해요인·미흡사항을 식별, 분석, 개선하기 위한 내부자율보고 건수</p>

## 2023 관제사·조종사 안전간담회 개최

지난 15일, 항공교통본부 주관으로 2023 관제사·조종사 안전간담회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항공교통본부 및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 관제사, 각 항공사 및 조종사협회 기장 및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본부장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교통본부에서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단축비행경로' 소개 및 '지역관제소 관제섹터 구조 개선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단축항공로 사용에 관한 조종사 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각 지방항공청에서 계기비행절차 변경사항 및 협조사항 등 공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항공사에서는 저시정 시 유도로 오진입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 항적난기류 등급 세분화 시범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요청 등 운영절차 개선방향 제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관제사와 조종사가 그간 업무 중 겪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제사와 조종사가 관제업무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늘길의 안전을 함께 증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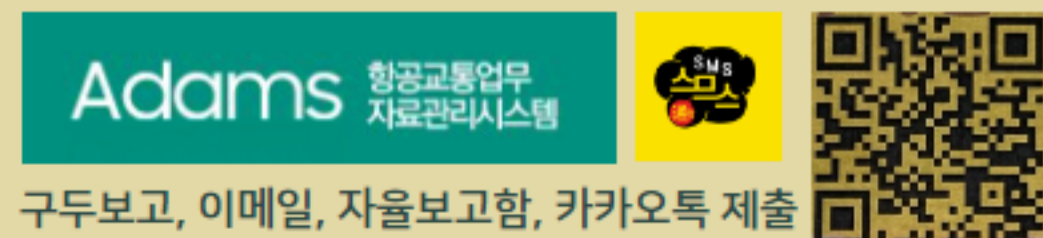
## 내부자율보고 접수방법

☆ 항공교통안전과: 전 분야(053-668-0226)

접수기관 ☆ 항공관제과: 대구ACC 관제분야(053-668-0246)

☆ 인천소 항공관제과: 인천ACC 관제분야(032-880-0235)

접수방법



구두보고, 이메일, 자율보고함, 카카오톡 제출

## ⚡ 영국 관제시스템 장애 발생

지난 8.28.(월) 영국의 관제시스템의 기술적 문제 발생으로 유럽 전역 항공편의 대규모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비행계획 자동 처리 기능의 고장으로 모든 비행계획을 수동으로 처리하며 기존의 수용량을 처리할 수 없어, 영국 NATS(항공교통센터)에서 착륙하는 항공편을 제한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백업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부정확한 데이터의 사용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비행계획을 관제사가 수동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교통본부도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접근관제소로의 관제권 위임 또는 관제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ACC 무중단 관제 업무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 🔍 다시 풀어보는 3분기 안전퀴즈

Q. 우리본부는 전년도 안전이벤트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 안전에 영향이 큰 대표 리스크를 '핵심리스크'로 지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본부 핵심리스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 |                 |                  |
|-----------------|------------------|
| 1. 비행계획서 오류 (X) | 3. 분리최저치 미확보 (O) |
| 2. 무선통신 두절 (O)  | 4. 관제협조 미흡 (O)   |
|                 | 5. 비정상운항 (O)     |



우리 본부는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핵심리스크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 1) 분리최저치 미확보, 2) 비관제 항공기 항공로 근접비행, 3) 비정상운항, 4) 무선통신두절, 5) 관제협조 미흡